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소식지

교육목적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탁월한 여성 지도자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통해 길러주고자 하는 성취능력을 교육목표로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에게 필수적인 의학 지식과 술기,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에 바탕을 둔 기본적인 진료 능력을 확립한다.

둘째, 건전한 윤리관, 사회적 책무성, 여성 리더십과 능동적인 자기개발능력을 함께 갖춘 의학 전문직업성을 확립한다.

셋째, 비판적 탐구 자세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넷째, 이웃과 국가, 나아가 인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함양한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사명·비전 선포식



02 대학소식

- 신입학장 인사말
- 비전선포식
- 심포지엄

03 동문소식

- 조종남 선배님 인터뷰
- 졸업 50주년 · 30주년 모교방문의 날

04 발전기금안내

- 의과대학 발전기금 및 구축기금 안내
- 약정현황 명단 (2019.07 기준)

05 기획기사

- 이순남 퇴임교수 인터뷰
- 구덕자 선배님 인터뷰

06 교수소식 / 동창회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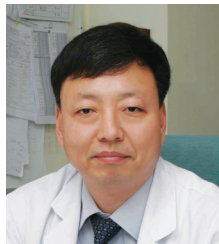
- 명예교수 임용 및 수상내역
- 교원 보직발령
- 정년퇴임사
- 동창회 신입회장 선출

07 특집기사

- 마곡캠퍼스 이모저모

대학소식

신임학장 인사말 제 25대 한재진(홍부외과학, 의학교육학) 신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 취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보임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목동 캠퍼스를 뒤로 하고 마곡에 새로운 동지를 틀게 된 2019년은, 74년 이화여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전임 이지희 학장께서는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을 차질 없이 완수하시며 미래의 이화의학 산실의 기초를 잘 마련하셨습니다. 이제 이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에서 이화의 인재들이 국가와 세계 보건의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에 매진하여 한국의 근대 역사에서 여성 의료인과 의학자로서 크나 큰 봉사와 학문의 업적을 남기신 수많은 선배들의 뒤를 이어갈 것입니다. 의과대학의 전 교직원들은 '미래의학을 주도하고 세상과 공감하는 의사와 의학자 양성'이라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교육병원인 이화의료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의료 분야의 탁월한 여성 지도자 양성'이라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신임학장으로서 이화여대의 설립 정신을 항상 되새기며 급변하는 의료 및 연구 환경에서 이 시대에 합당한 의과대학의 책무를 다하면서 또한 미래에 더욱 부각이 될 글로벌 의료보건 체제와 초지능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의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간의 어려웠던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 도약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며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이화의 가족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의과대학 마곡캠퍼스 이전, 보구녀관 전통 이어받아 새로운 도약 다짐 <비전선포식>

의과대학(학장 이지희)은 5월 28일(화) 오전 마곡지구 의과대학 3층 강당에서 사명·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본교 의과대학은 1887년 미국 여의사 메타 하워드가 1대 의사로 진료를 시작한 한국 최초 여성전문병원 '보구녀관'의 전통을 이어받아, 한국 여성 의학의 선구자로서 자리매김해왔다. 보구녀관에서 의학교육을 시작해 이화학당의 박에스더가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로 성장했고, 최초의 간호사 이그레이스와 김마르다도 보구녀관 간호원양성소에서 배출되는 등 이화의 의학교육은 한국 의료 및 간호교육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의과대학은 이러한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이어받아 마곡캠퍼스 이전을 계기로 21세기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의학교육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비전을 수립했다. 이날 발표하는 비전 '미래의학을 주도하고 세상과 공감하는 의사와 의학자 양성'은 용기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의학의 미래를 선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날 선포식은 이지희 의과대학장 환영사로 시작해 김혜숙 총장과 문병인 의료원장, 한희철 한국외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의 축사, 이지희 의과대학장의 사명·비전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김혜숙 총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으로서 최초의 타이틀에 만족하지 않고, 미지의 길을 개척하고 우리나라와 인류를 위해 세계 의학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의료전문가이자 탁월한 지성인을 배출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은 "교육과 연구는 대학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의과대학의 새로운 가치 정립 필요성과 책임에 대해 공감한다"고 행사의 의의를 밝혔고, 한희철 KAMC 이사장은 "의학 분야 여성 지도자를 배출해온 이화여대의 새로운 출발을 전국 40개 의대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아 축하하며,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사명·비전 선포식에서 이지희 의과대학장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탁월한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미래의학을 주도하고 세상과 공감하는 의사와 의학자 양성의 비전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비전 선포를 축하하고, 의과대학의 성공적 도약을 지원하는 마음을 담아 선포식에 함께한 모든 참가자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이벤트도 마련됐다.



의과대학 마곡이전 기념 학술 심포지엄 <New Era of Ewha Medical Science Research>

5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 의과대학 새 캠퍼스 이전을 기념하는 학술 심포지엄 '새 시대의 이화 의학 연구'가 진행됐다. 본 행사에는 본교 연구자를 비롯해 의학자 및 의료·생명과학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의학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지희 의과대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화여대는 이대목동 및 이대서울병원과 함께 시너지를 이루며 의과학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메디컬 콤플렉스를 구축하게 되었다"며 "본교 의과대학이 선진적 융합연구들을 주도하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이 자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의대연구부학장 박은미 교수가 좌장을 맡은 세션 I '최신 의과학 연구 및 방향'에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활동 중인 약학대학 이공주 교수와 한국과학기술원 고규영 교수, 충북대 김응국 교수가 연사로 나서 사람 중심 과학기술 정책, 마곡지구의 R&D 인프라 구축과 의과학 연구의 최신지견에 대한 토론의 장을 펼쳤다. 세션 II '항암제 개발 및 기술산업화 전략'은 의무산학 부단장 류동열 교수가 좌장을 맡고, LG생명과학 손지웅 본부장, 홍성원 신약연구센터장과 의과대학 이지희, 김휘영, 문창모 교수가 의학업계의 '오픈 이노베이션'과 항암제 개발 등 다양한 주제를 발표했다.

동문소식



이화여대 의과대학 조종남 선배님 (24회 졸업) 인터뷰



Q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1975년에 졸업한 조종남 (24회 졸업)입니다. 현재의 제가 있기까지, 그 바탕에는 이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화 대학을 졸업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화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Q 동문님께서는 학창시절 이화에서 어떠한 꿈을 가진 학생이셨나요?

A 저의 어머니께서는 배움에 열정이 있으셔서, 일제 강점기 당시에도 사범 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십니다. 어머니는 당시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을 보며, 제가 여성을 위한 활동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성에게 풍부한 기회가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저는 능동적으로 활동하며 현재의 제가 되기까지 밑거름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학생회장으로서 다른 과 학생들과 친분을 쌓았던 것, 훌륭한 교수님들에게 많이 배웠던 것, 채플을 통해 영혼이 맑아지고 성숙하게 된 점 등 소중한 기억들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 YWCA 회장으로서 시민활동을 하는 것도 꿈을 실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Q 오랜 세월을 거쳐 이화의대와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으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A 저는 13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의과대학 출신으로는 최초로 이화대학 총동창회장을 지냈습니다. 22만의 동창 대표로 활동을 할 당시, 병원은 병원대로 진료를 봐야 하고 밤낮으로 열리는 많은 행사에도 참석해야 했기에 아주 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창회장 경험을 통해 단순한 의사 생활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정익롭고 평화롭게 살아가 수 있었습니다.

Q 시신 기증을 원하시는 어머니의 숭고하신 뜻과 고인유언서부터 가족동의서가 있기까지의 과정은 어땠는지요?

A 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들어가면 인체 해부를 합니다. 어머니는 평소 종교적 신념과 세상에 이바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시신 기증에 대한 가족 동의서를 가져오셨을 때, 처음에는 저도 의사이지만 선뜻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뜻이 굳건했기 때문에 결국 저도 어머니에게 존경심을 품고 그 뜻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화에 애착을 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어머니도 이화에 기증 서약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존경스럽지요. 아마 해부학 실습을 처음 하게 되면 무섭고, 떨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후에도 의학이라는 학문에 도움을 주시는 고인의 뜻을 숭고히 여기고 경건하게 임해주길 바랍니다.

Q 여러 가지로 이화여대 의과대학의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화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저는 재학 당시 장학금을 많이 받고 다녔고, 받을 때마다 미래에 내가 잘되어 학교에 돌려주어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본교와 의료원에 각각 2억 이상을 기부하였고, 제 이름을 부친 '조종남 장학금'으로 1억을 기탁하기로 하여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이번 시신 기증을 인연으로 해부학 교실과 연결되어 1000만원을 기부했고 최근에 산부인과 쪽에 연구용 기자재용으로 기부금 1000만원을 기부하였습니다. 또 10여년 전에 의과대학 기숙사 건축을 위한 목적금 기부를 따로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의대 기숙사가 생겨서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법과대학에 기숙사가 생기고 나서 사시합격 숫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것을 보며 정말 부러웠기 때문에 작은 모퉁이돌을 놓는 마음으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번 기숙사 건립을 통해 앞으로 더 훌륭한 후배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이화의대 후배들이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A 리더의 경험을 많이 쌓길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가 뒤에서 도와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이라도 망설이지 말고 당당히 리더로서 우뚝 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전에 서울시 의사회 25개구 중 금천구 의사회 회장을 유일한 여성 대표로서 지냈던 경험 등, 리더의 역할을 많이 맡으며 후배들의 귀감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후배님들!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그 기회를 잡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기자단 의예과 1학년 임나은〉



동문인터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E-mail: mediewha@ewha.ac.kr

졸업 50주년·30주년 기념 모교방문의 날 행사 개최

5월 31일 이화여자대학교 창립기념일을 맞아 '이화의대 졸업 50주년·30주년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5월 15일 (수) 12시, 5월 22일 (수) 7시에 이대서울병원 지하 2층 제2식당에서 가졌다. 18기 및 38기 의과대학동창 및 의과대학 교직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이지희 의과대학장 축사, 문병인 의무부총장 인사말씀, 심현 동창회장 인사말씀, 50주년 동창 최보원 대표·30주년 동창 김지영 대표 말씀으로 이어졌다. 식후 행사로 이화여대 의과대학 마곡캠퍼스 및 이대서울병원, 보구녀관 등을 둘러보았다. 동창들은 "미래지향적 의과대학 마곡캠퍼스와 환자중심병원으로 건설된 이대서울병원을 보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18기, 38기 동기 모임은 의과대학 발전기금 및 장학금을 기증하였다.

의과대학 교육인프라 구축기금 안내

의과대학 교육인프라 구축기금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은 2019년 초 개원한 강서구 마곡지구 새 병원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 교육, 최첨단 연구기반 시스템**을 확보하여 **세계 여성 의학을 선도하는 의학 교육** 기관으로 비상할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인프라 구축 기금**의 확충을 통해 최첨단 교육 설비 및 기자재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의과대학 새 캠퍼스

대지면적	교육연구시설
3,000평	9,125.6평 (지하 5층, 지상 12층)
기숙사	착공/준공
1,130.6평(지상 12층) 179인 수용(1인실x19실, 2인실x80실)	착공: 2015년 11월 준공: 2018년 11월

1실당 현판에 표시되는 후원자 인원 수는 공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첨단 교육 인프라 구축 계획

태블릿 PC 기반 각종 평가 및 피드백, 학습 솔루션 제공 및 미래형 임상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

의과대학 전용 기숙사

1인실 17실, 2인실 80실, 장애인실 2실, 총 179명 수용

의과대학에서제공하는 후원자 예우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기숙사 기금에 한함)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메인 로비에 후원자 성함 부착	기숙사 사설(2인 1실) 입구 후원 현판 제작	세미나실 등 입구 후원 현판 제작	중형 강의실 입구 후원 현판 제작	계단식 강의실 입구 후원 현판 제작

이화여자대학교 에서 제공하는 발전기금 후원자 예우

공통 예우

- 후원 감사카드, 모바일 생일축하카드 발송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도너스월(디지털월)에 이름남김
- 이화달력 및 성탄카드 발송(총 약정액 300만원 미만의 경우 기부연도에 1년 제공)
- 후원자 ID카드 발급: 교내기관 및 편의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 제공

- 교내시설: 생활협동조합 기념품샵(5%), 박물관 기념품샵(10%), E-feel(5%), 도예연구소 작품(10%), 출판문화원 도서(5~10%), 이화인의 나눔가게(10%)
- 편의시설: 케세이호(10%), 닥터로빈(5%), 리치몬드(5%), 카페 네스카페(20%), 교보문고(5%), Soho&Noho(15%), 구내안경점(10~20%), 링크(10%)

의과대학 발전기금 및 교육인프라 구축기금 약정현황 명단 (2018.03.01 ~ 2019.07.05 기준 약정일순)

회원명	약정금액	회원명	약정금액	회원명	약정금액	회원명	약정금액
임문규	50,000,000	온영근	10,000,000	이순남	10,000,000	윤주천	10,000,000
의과대학 38회 동기회	30,000,000	이윤경	5,000,000	김정아	3,000,000	최보원	10,000,000
김명래	20,000,000	최경희	10,000,000	심기남	10,000,000	문선미	30,000,000
신정아	10,000,000	오혜숙	10,000,000	구덕자	10,000,000	의과대학 37회 동기회	20,000,000
박영미	10,000,000	김윤희	10,000,000	안정자	10,000,000	신동훈	1,000,000

※문의: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Tel (02)3277-6827, 2928, 2927 Fax (02)392-3473 E-mail ewha21@ewha.ac.kr

의과대학 행정실 Tel (02) 6986-6003~6014 Fax (02)6986-7000 E-mail mediewha@ewha.ac.kr

※ 후원자는 의과대학과 이화여자대학교의 예우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획기사



이화여대 의과대학 이순남(내과학) 퇴임교수 인터뷰

Q 오랜 세월을 걸쳐 이화와 함께 한 추억과 애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 특별히 기억에 남으시는 일과, 보람 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A 제일 인상 깊었던 일은 김옥길 선생님의 주치의를 맡았던 일입니다. 김옥길 선생님께서는 직장암에 걸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30년 전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종양학이 발전하지 않아 환자들은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언제나 강조하셨던 것이 애국심과 애교심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내가 내 나라의, 우리 학교의 의사를 믿지 않으면 누가 믿느냐”라며 외국에서 치료를 받자는 권유를 마다하시고 한국에서 수술을 하신 뒤, 젊은 조교수인 제게 내과 치료 주치의를 맡기셨습니다. 또 김옥길 선생님께서는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서, 수술 후 2달 만에 목동병원 건립기금 모금을 위해 미국의 동문들을 방문하시기로 한 일정을 이행하셨습니다. 인품이 훌륭하신 큰 스승님을 환자로 모시면서 배우는 것이 많았습니다. 또한 의학교육실장과 학장, 의학전문대학원장을 맡아 하면서 교육과정을 재편한 것이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학, 법학, 교육학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교육과정에 속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사를 마친 뒤 전문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판단 하에 이화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고, 3년에 걸쳐 목표를 재설정하고 외국의 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하며 교육과정을 고쳐 나갔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임종 돌봄 교육(End of Life Care)을 교육과정에 집어넣는 등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의과대학은 굉장히 좋은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쳐서 보냈냐”라며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전통적으로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교육과정을 잘 소화해 내는 학생들과 항상 노력해 주시는 행정실 선생님들까지 삼박자가 잘 맞아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이화에 남기시는 구축 기금이 어떻게 쓰이길 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시작해, 1년에 5백만 원씩 10년을 모아서 5천만 원을 내과학 교실에 기증했습니다. 다른 분들과 합쳐서 기금이 총 2억이 되었고, 현재 그 이자로 전공의들 학회 참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과대학에도 장학기금으로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장학기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생각 외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학금이 많이 모여 모든 학생들이 학업 중에는 경제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적과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 기부행위가 널리 알려져서 다른 동문분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장학금이 잘 조성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순수하게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데 쓰이길 바랍니다.

Q 이화를 떠나시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제가 72학번이니까 이화여대와 연을 맺은 지가 47년, 교수가 된 지는 33년이 되었습니다. 소신껏 원칙을 지키며 정도를 지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 이화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와 보호자를 포함한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좋은 학생들이 있었기에 소신 있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난 후에도 이화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2017년도에 설립한 모금 활동과 관련한 학회인 ‘한국 Philanthropy Society’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보건 의료 분야는 상대적으로 모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에, 의료계에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모금을 활성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 의료 분야에서도 기부금이 많이 모여 연구 지원, 장학금 지급, 환자 지원 등이 잘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학생기자단 의예과 1학년 임나은, 전소연〉



이화여대 의과대학 구덕자 선배님 (18회 졸업) 인터뷰

Q 선배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구덕자입니다. 의과대학 졸업 후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내과 전문의를 취득했습니다.

Q 구축 기금을 후원하셨는데 계기는 무엇이고,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길 원하시나요?

A 후배들이 더 나은 시설에서 공부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업 외에도 각자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기숙사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Q 선배님께서 생각하는 ‘이화’는 어떤 힘을 가졌나요?

A 제가 의대생이었던 때가 벌써 50년 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높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이화’는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화’의 전통과 기독교 정신은 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Q 선배님께서 바라는 의과대학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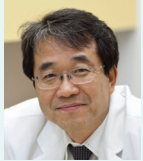
A 첫째로, 국가와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 둘째로, 헌신과 봉사를 베풀 수 있는 인재가 배출되는 대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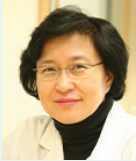
A 먼저, 이화인으로서 자존감과 긍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참된 인간으로서 인류 사회에 공헌하고, 진료와 연구에 전념하며 사랑과 나눔을 베풀 수 있는 의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기자단 의학과 3학년 정지수, 의예과 1학년 전소연〉

교수소식


**2019학년도 1학기
명예교수 임용(2019.0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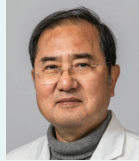
김영철(정신건강의학)



신길재(내과학)



이귀용(마취통증의학)

**2019학년도 2학기
명예교수 임용(2019.09.01.~)**


안재호(흉부외과학)



이순남(내과학)

**제15회
'이화학술상' 수상**


하은희(직업환경의학)

교원 보직발령 (2019. 8. 1 자)

보직명	임명	
	성명	소속
의과대학장	한재진	흉부외과학
의과대학부학장(학생)	김혜순	소아과학
의과대학부학장(연구)	김희선	분자의과학
의과대학의예과장	박영미	분자의과학
의학교육학교실주임교수	권복규	의학교육학
내과학교실주임교수	이지수	내과학
피부과학교실주임교수	최유원	피부과학
외과학교실주임교수	이령아	외과학
흉부외과학교실주임교수	김관창	흉부외과학
임상치의학대학원장	김선종	치과학
치과학교실주임교수	방은경	치과학
학생처장	이덕희	응급의학
기획처장	정희경희	직업환경의학
연구처장	공경애	예방의학
교육과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진	내과학

정년퇴임사

"You are always on my mind!"

이귀용 교수(마취통증의학)



며칠 전 27회 카톡방에 오혜숙 동기가 이화여자대학교 교정의 봄꽃 사진을 몇 장 올려주었기에 봄빛이 찬란한 사진에 홀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에 이대입구역에 내려 잠시 학교에 들렀습니다. 여행가방을 옆에 놓은 채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을 지나 일부러 후윳길로 들어섰습니다. 완만하게 경사진 그 길은 45년전, 과 친구들과 함께 이른 아침 수업시간에 맞춰 빠른 걸음으로 걷던 스무 살의 나를 회상하며 걸을 수 있어 기분이 좋아지는 길입니다. 역시나 카톡 사진에서처럼 김활란선생님 동상 주변에 목련 꽃이 구름처럼 피었고, 그 옆 언덕 위에는 예전의 의과대학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구 의학관의 1/2은 약대가, 반대편 1/2은 의대가 사용하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왼쪽에 과 사무실이 있었고, 그 앞에 계사편이 있어 학생들은 오며 가며 공지사항들을 확인하곤 하였습니다. 의과대학 건물의 맨 위 층에 해부학교실 실습실이 있었습니다. 의학과 1학년 가을 어느 날, 학교 앞 시위에 이어 대강당에 모여 밤샘을 하고 다음날 아침 학생들은 학교 버스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휴교령이 내려져 모든 수업도 중지되었습니다. 그 학기에는 신경

해부학과 해부학 강의 후반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터라, 휴교 중이었지만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해부학교실의 허락을 받고 실습실에서 Atlas를 펼쳐놓고 우리끼리 자율실습을 하였습니다. 총수돌기 절제를 마치고 어두운 계단을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1987년 조교수로 임용된 후, 동대문병원의 학생강의실을 거쳐 목동의 의과대학 강의실에서 마취과학 강의를 하는 동안 강의교재 준비도 오버헤드 프로젝트의 OHP 필름에서 PC upload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면서 교과과정이 개편되고, 아울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업방식이 개발되면서 많은 교수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며 이는 다른 의과대학에서도 부러워하였습니다. 2019년 2월 이대서울병원 개원과 함께 의과대학도 마곡캠퍼스로 이전하여 첫 졸업식을 치루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과대학 체제로 되돌아간 마곡캠퍼스에서는 신촌, 동대문, 목동의 의과대학 시절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규모와 시설들을 갖추었습니다. 수업과 실습을 위한 강의실, 연구센터, 도서관, 이화 시뮬레이션 센터(EMSC) 및 온라인 기반 러닝플랫폼 등의 첨단교육시스템을 둘러보고 나면, 미래를 향한 의과대학 발전의 꿈이 현실이 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동문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의대 학생전용 기숙사는 동문들에게도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 학생, 교수 및 동문 모두가 도약의 발판에서 함께 멀리 뻗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You are always on my mind!

동창회 소식

동창회 신입회장, 심현(29회) 동창 선출


이화여대 동창회는 지난 9일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제5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심현 수석 부회장(29회, 서울내과의원)을 신입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심현 심임 회장은 앞으로 회기동안 회원들의 심부름꾼으로 짐을 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우리 모두는 이대병원 100년 역사에 있어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아울러 한쪽 발은 새로운 시작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시작점에 서 있다"며 "우리의 모교, 모교 병원의 한국의료계에 있어서의 위상은 우리를 자신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대의대, 동창회, 이화의료원, 앞으로 10년, 20년, 50년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칩시다. 우리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망하는 기원과 바람은 의대와 의료원, 동창회가 성공적인 미래를 열어 나가는데 있어 앞장서 펴려야 하는 것발이 되고 어둠을 밝히는 불기둥이 될 것"이라며 "모두 힘을 합해 나갑시다. 새로운 발전을 열고 역사를 써나가는 데 있어 주인공이 됩시다"라고 강조했다.

특집기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마곡캠퍼스의 이모저모

2019학년도 2월부터 의과대학이 마곡캠퍼스로 이전하였습니다. 의과대학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마곡캠퍼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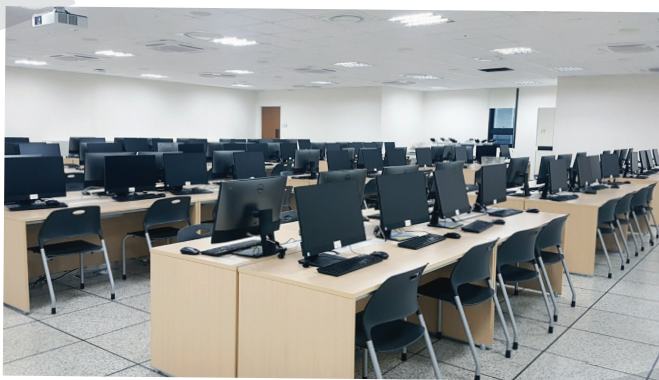
기숙사

층	시설현황
5층~12층	기숙사 사설, 화장실, 새침방
4층	기숙사 사설, 기숙사 사무실, 화장실, 세탁실
2층	의과대학 행정실, 생협
1층	경비실
지하 1층	의학도서관, 자율학습실, 체력단련실, 기도실, 학생회실, 동아리실, 휴게실
지하 2층	이대서울병원 식당 (병원 쪽 건물)
지하 3층	방재실

마곡캠퍼스에는 목동캠퍼스에 없었던 기숙사가 생겼습니다. 기숙사 시설은 장애인 전용 시설을 포함한 1인실 19개, 2인실 80개로 총 179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각 층에는 학생들이 공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침방이 위치해 있으며 정수기, 전자레인지, 토스트기 등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4층에 위치한 기숙사 사무실에서 기숙사 생활 관련 문의를 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당직조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 3층 방재실에서 전기, 전화, 설비, 냉난방 등 고장 신고 및 문의가 가능하고, 1층 경비실에서 24시간 경비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지하 1층에는 자율학습실, 체력단련실 등 학생들을 위한 여러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자율학습실은 24시간 지정좌석제로 운영되고, 체력단련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무인 택배함을 통해 기숙사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 및 실습실

1층에는 의학과 1, 2학년 강의실이 위치하고 있고, 2층에는 3, 4학년 강의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학년별 강의실은 10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실습실은 2층에 Dry lab, Wet lab이 위치하고 있고, 지하 1층에 해부 실습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Dry lab에서는 현미경 실습이 이루어지며, 자리마다 배치된 컴퓨터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t lab에서는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실습 등 화학 약품을 이용하는 실험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마곡 의과대학에 새롭게 생긴 해부학 실습실에는 모니터, 카메라 등 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한 여러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하며,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의학도서관

지하 1층에 위치한 의학도서관은 의학서적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후 5시까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총 10권의 책을 14일간 대출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내부에는 세미나실이 마련되어 있어 팀 프로젝트, 스터디 등의 활동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복사기, 컴퓨터도 마련되어 있으며 노트북 대여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어 과제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도중에 모르는 것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학과 1학년 방윤지 학생〉



의과대학 마곡캠퍼스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우소연(정보관리부장)

편집위원 김윤진(정보관리부 차장), 김범산(정보관리부 차장), 박유경(의과대학 행정실)

학생기자단 정지수(의학과 3학년), 방윤지(의학과 1학년), 임나은(의예과 1학년), 전소연(의예과 1학년)

디자인·인쇄 정디자인



※ 소식지에 게재할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mail: mediewha@ewha.ac.kr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병원 '보구녀관'